

聖住寺址金堂階段側出土  
百濟莫斯瓦片1968. 10. 18

窀穸을慰靈하는 뜻에서 烏合寺를 創寺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烏合寺는 武王十七年 創建에 義慈王二十年까지 四十五年이며 以後 新羅統一의 唐宣宗大中元年丁卯(新羅文聖王九年)多十一月一日에 無染國師가 烏合寺에 至한 해까지는 百八十七年 總二百三十二年の 歲月에 그 寺名을 維持하고 온 것을 알았다.

事蹟記에 「時藍浦群賊。起劫令狄。但存第屋也」로 있어서 마치 願刹을 創建하자마자 藍浦群賊들이 寺院을 불살려 버리고 몇간의 第屋만 남은 듯한 記錄이다. 이는 百濟滅亡期の 所行일것이라 본다.

또한 無染國師가 烏合寺에 와서 文聖王의 勅賜로 聖住禪院이란 改名과 山日崇岩할적에 여러 佛殿을 改創하였는데도 事蹟記에 다시

鐘閣二層  
中行廊 三百間破

外行廊 五百間破  
基階窠存

水閣 七間破

庫舍 五十間破라는 것이 烏合寺時代 있던 것을 藍浦群賊의 所行이나 或은 無染國師가 烏合寺에 왔을적에 和尚이 才高德重하여 無爲而化하고 不言而信하여서 藍浦群賊들이 轉讓請益하던 當時의 群賊行爲에서 破壞된 것인지 또는 其後の 破인지 未詳하다.

今次 東國大學 黃壽永教授와 聖住寺址를 돌아보는 중에 金堂前階段左 袖板石下 地表에서 八〇cm下에는 原土에 百濟時代 蓮華文 숫막새(圖面

參照) 破片을 다시 얻었고 無文埵도 蒐集하였다. 地層을 보건대 最底下에서 百濟瓦가 불에 맞아 赤色瓦가 되고 그 위에 新羅瓦도 火災에서 赤色이 되어 李朝瓦와 混出되었다. 事蹟記를 어느 程度 信憑할 것일지 모르겠으나 聖住寺前身이 烏合寺라는 것과 創建目的이 戰勝窀穸을 慰靈하던 寺院이라면 史記百濟本紀 義慈王十五年에 驛馬가 佛宇를 鳴迦하였다는 記錄도 兵과 馬와는 不可分の 關係가 있는 것으로 볼적에 百濟가 國運이 기울어질 것을 暗示하던 恠變의 一種일 것이다.

그런데 百濟本紀에 義慈王十五年에 驛馬가 入北岳烏合寺란 것이 遺事에는 顯慶四年巳未 즉 義慈王十九年으로 되어서 四年의 差가 있다. 이 義慈王十九年은 百濟가 滅亡하는 前兆의 가지까지의 恠變이 일어난 記事가 있으며 日本書紀에는 齊明天皇四年 즉 義慈王十八年으로 되어서 遺事와는 一年差가 있다. 筆者가 上記 三件들을 생각할 적에 義慈王十九年에 들어갈 것을 十五年에 誤記한 듯하다.

끝으로 이 論考를 쓰게 됨은 黃壽永教授의 꾸준한 文獻蒐集에서 얻어진 聖住寺事蹟記가 있었고 東國大學 學生旅行團員에 依하여 얻어진 百濟蓮華文瓦當들이 前提되어 다시 同寺址를 調査함에서 起筆한 것이다. 黃教授에게 甚深한 謝意를 表하는 바이다.

### 普門寺 西塔址心礎의 調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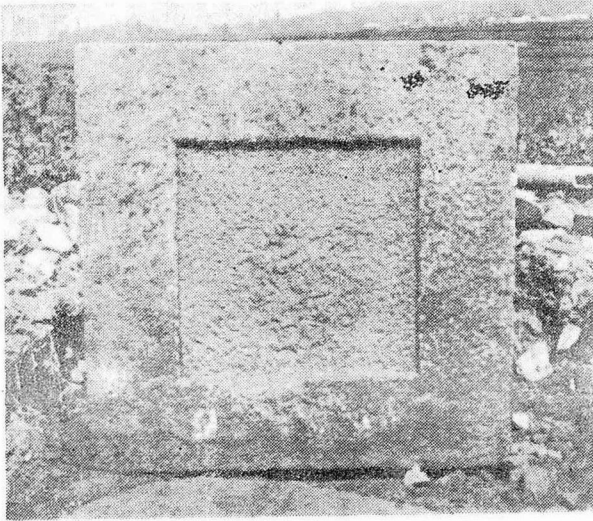
秦 弘 燮

慶州에서 東으로 十餘里 明活山麓에 普門洞 마을이 있어 洞里入口丘陵에서 夫婦塚이 調査되었고 廣濶한 平地에 寺址가 傳하고 있음은 이미 알려진 事實이다. 일찍이 「普門寺」在銘의 瓦片이 發見된 일이 있어서 이곳을 普門寺址로 推定하고 있다. 이곳에는 礎石과 建物 基壇이 原狀대로 남아 있는 金堂址를 中心으로 講堂址, 門址, 廻廊址, 塔址, 石燈 등이 있어 이미 調査를 거친 바 있고 ① 그 외에도 幢竿支柱 一基 ② 石槽 ③

等の地上遺物이 傳하고 있다.

이 寺址의 金堂址 中心에서 南으로 約二三m 거리에 石燈臺石이 논 가운데 있고 그 地點에서 西로 二六・五m 地點에 雜石과 瓦片의 堆積이 있고 이와 對角되는 地點에도 石堆가 있어 이곳을 東西의 兩木塔址로 推定하여 왔다. 東塔址는 礎石 一個가 土壇 밑에 頽落되어 있을 뿐 其他 遺構를 남김이 없고 西塔址의 石堆 中心에는 八葉 複瓣 蓮花가 彫刻된 心礎石이 있어 그 特異한 樣式에 注目하여 왔다. 一九二八年 이곳을 調査한 藤島亥治郎氏는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이 平坦한 上層 中央에 있는 中心礎는 매우 異色的인 것이다. 即一邊 四・四七尺의 正方形 臺石上에 直徑 四・一尺 高 八・三寸의 蓮座가 있고 위에 幅 七・七寸의 圓座를 두고 中央에 直徑 一・〇三尺의 구멍을 뚫었다. 蓮座는 八葉의 蓮瓣으로 中央이 두드러졌고 豐滿한 膨張이 있으며 先端은 優雅하게 反轉되었다. 復蓋는 斷面 半圓에 가깝게 길게



늘어났고 子房의 中央의 구멍과 圓座가 이에 該當한다. 또 두 典麗하기 이를데 없는 新羅盛期의 手法으로 柔하지 않고 勁에 흐르지 않은 特히 優秀한 作업이 틀림 없다.

이로서 心礎의 狀態와 蓮瓣의 手法을 알겠고 이 記述로 또 는 掲載된 寫眞으로 보아 이 蓮花 心礎石은 藤島氏 調査時 에는 地表에 露出되

었던 것으로 推測된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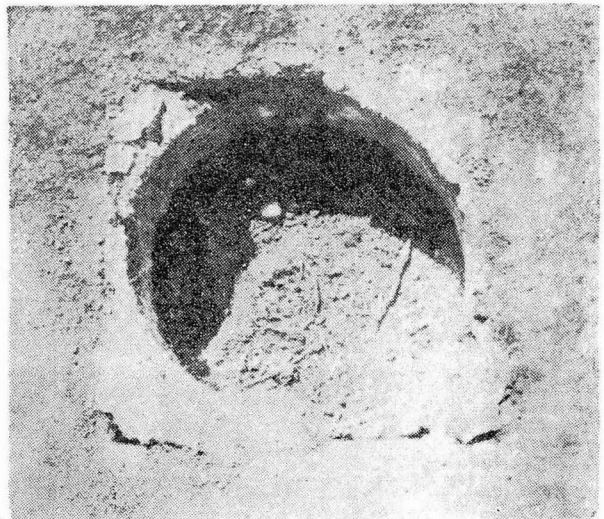
今次 調査時에는 이 蓮花礎石은 完全히 石堆 속에 묻혀 어느 때 일인지는 알 수 없으나 一部에 輕微한 損傷마저 입고 있었다.

이 塔址로 木塔址로 推定되어 왔으니 이와 같은 心礎의 樣式으로 보아 疑心할 바가 없다. 特히 木塔의 心礎로서 蓮花를 裝飾한 例는 일

찌기 그 類例를 볼 수 없었던 것으로 藤島氏도 前記 論文에서 이에 對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丁重한 手法을 塔의 中心礎石에 使用한 例는 中國 日本을 보아도 아는 바 없다. 그 形式은 石燈臺石을 連想케 하며 或은 石燈臺石을 이곳에 移置한 것으로도 一應 생각되나 이 돌이 土壇의 中央에 있는 點, 故意로 後世에 이곳에 올려 놓을 必要가 없는 點 등으로 否定된다.

또 이 土壇을 西塔址가 아닌 石燈臺 中心한 어떤 施設이라고 解釋하는 것도 이상하다. 생각컨대 新羅塔 中心礎는 他와 매우 類를 달리하여 各種 技巧을 볼 수 있다. 例컨대 前述한 望德寺 西塔의 八角形 中心礎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 塔址와 같이 丁重함은 他에 絕對로 類例가 없다. 밑에서 멀리 바라다만 보는 效果를 내면 足한 瓦當에 까지도 심세한 浮彫를 하는 時代이니 寺刹에서 가장 敬重한 佛舍利塔에 이와 같은 彫刻을 하 였다고 해서 조금도 異常할 바가 없다.



果然 그 外形은 石燈 下臺石과 恰似하나 그 以下를 調査하지 아니한 까닭으로 石燈與否가 論議된듯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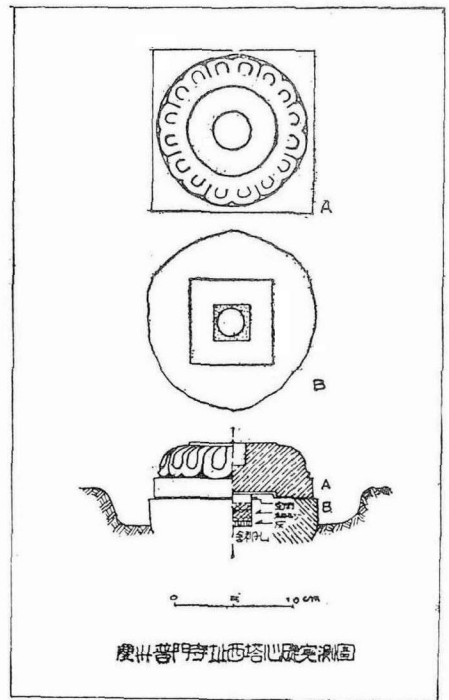
이번에 調査에 依하여 이것은 틀림없는 心礎石임이 밝혀졌고 따라서 藤島氏의 말대로 中國 日本 등 東洋 佛敎國家의 心礎石의 遺例中에서 가장 特異한 것이라 하겠다.

即 一三五cm(北)×一三四cm(西)의 거의 方形인 臺石 위에 불혀서 一石으로 徑 一二四cm、高 二四cm의 八葉 複瓣의 蓮座를 만들고 그 上面에 徑 七四cm 高三·五cm의 圓座를 마련하였다. ⑤ 이 圓座는 即 心柱의 柱座로 보아야 할 것이니 그 直徑은 尺으로 二·四五尺 곧 一·四唐尺이 된다. ⑥ 圓座 中心에는 徑 三三cm 深 一八cm의 圓孔이 있는 바 이곳에 舍利의 藏置 與否는 알 수 없다.

이 心礎 밑에는 一五三cm(北)×一四二cm(東)의 圓에 가까운 不等形石材가 놓여 있다. 이 上下의 石材는 彼此 密接한 關聯이 있을 것이고 舍利는 이곳에 藏置하였을 可能性도 있는 일이다. 따라서 蓮花心礎石을 들어 올린 結果 이곳에 따로 施設이 있었음을 確證하게 되었다. 即 地臺石 中心에 一邊 七〇cm(東西는 各 七〇cm이고 北이 六九cm 南이 六九·五cm임) 높이 一一·一cm의 方座를 만들고 그 안에 方形 舍利孔이 있다. 舍利孔은 一邊 三〇cm(南北은 三〇cm이고 東邊은 二九·五cm、北邊은 三〇·五cm이다) 깊이 二五·三cm이다 한편 心礎石 裏面에는 中心에 一邊 七五cm(南·西邊은 七五cm이고 北邊은 七五·五cm 東邊은 七三·五cm이다) 깊이 一一·五cm의 凹部가 있어 臺石의 턱에 꼭 들어맞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施設을 갖춘 方形 舍利孔에는 圓形 舍利函을 藏納하고 남은 空間은 尙히로서 補填하였으나 舍利函은 없고 底面에 一·八cm 두께로 회가 깔리고 그 위에 一五·五cm 두께의 모래가 섞인 塵埃가 쌓이고 그 위에 貝殼 一個가 남아 있을 뿐이었다. 補填된 尙히는 原形을 남기고 있어 空間으로 남은 部分은 上面에서 徑 二七·五cm였다. 마치 墓穴을 보는 것과 같은 槓槨이 돌았다.

비록 藏納되었던 舍利莊嚴具는 一切 없어졌으나 特異한 舍利孔 自體



慶州普門寺址 西塔心礎 實測圖

의 構造는 다른 데서 보기도 드문 遺例이다. 大體로 心礎의 舍利孔이 方形 或은 圓形의 舍利孔이 二段으로 파져 蓋石을 덮게 된 것이 普遍的인 樣式이나 그와 反對로 위로 一段의 턱을 만드는 手法이 特異하다. 特히 礎石 裏面에 밑의 턱에 맞도록 파 놓은 精巧한 手法을 보여 준다. 舍利孔에 密着되는 上部의 部材 裏面에 加工한 例가 石塔에서도 없는 바 아니고 法泉寺 智光國師文妙塔에서는 塔身 上面에 舍利孔을 마련하고 이와 密着되는 屋蓋石 裏面 蓮花를 彫刻한 例가 있기는 하나 ⑦ 이와 같은 特異한 施設도 稀例에 屬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舍利가 언제 盜取되었는지는 全然 알 길이 없다. 舍利孔에 남아 있는 空間은 徑 二七·五cm 임으로 徑約 九唐寸의 大作의 舍利函이 있었다고 推定된다. 그러나 一片도 남지 않은 舍利空孔만으로는 그 以上의 推理가 不可能하였다.

註

① 藤島亥治郎博士는 一九二八年 이곳을 調査하였고 그 結果를 「朝鮮 建築史論」으로 發表하였다. 普門寺址에 關係되는 部分은 建築雜誌 (一九三〇、三) 朝鮮建築史論 其二에 실려 있으나 地表調査만 한 듯 心礎下의 構造에 對하여는 全然 言及이 없다.

- ② 普門寺址에는 二基의 幢竿支柱가 있는 바 金堂址 西南方 約三〇〇m 거리에 있는 一基가 寶物 二二三號로 指定되었고 北方 部落附近에 있는 一基는 指定되지 않았으나 兩柱 外側 上面에 圓形 蓮花文이 있어 特殊한 手法을 보여주고 있다.
- ③ 金堂 北方 約八〇m 논쪽에 묻혀있다. 寶物 第六四號로 指定되었다.

④ 東塔址는 實測結果 現 石堆의 中心點과 實測에 依한 推定 中心點이 合致하지 않아 現 石堆는 塔 中心에 다 若干 南方으로 偏在해 있다.

그리고 石堆上面을 試掘해 보았으나 아무 遺構도 發見하지 못하였다.

⑤ 藤島博士는 石燈 臺石으로도 比定하였으나 圓座만으로 해서도 石燈 臺石은 될 수 없다.

⑥ 圓座뿐 아니라 蓮花 乃至는 밑의 舍利孔의 尺數를 보아도 모두 唐尺을 使用하였음을 볼 수 있다. 例를 들면 蓮花文 徑 四·〇九尺은 四唐尺이고 舍利孔의 一邊 一·〇〇八尺은 一唐尺이 된다.

⑦ 金禮庚·法泉寺智光國師玄妙塔의 舍利孔 考古美術六一〇·一二) 參照

## 皇龍寺九層塔과 周尺

申 榮 勳

皇龍寺에 木造九層塔이 있고 塔의 刹柱에 「鐵盤已上高四十二尺·已下一百八十三尺」이라는 銘文이 기록되어 있었음은 三國遺事(卷三塔像第四 皇龍寺九層塔條)를 통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刹柱記에 記錄되어 있는 尺數가 어떠한 尺度로 測定하였을 때 나타난 數值이고 그 數值를 現用尺과 對比하면 얼마만큼의 크기로 나타나겠느냐는 것이 문제로 되어 왔다.

이것을 밝히기 위하여는 부수되는 여러 문제를 먼저 검토하여야 되었다.

다.

刹柱記가 初版 當初에 記錄되고 후에 그것이 三國遺事に 轉載된 것이니 지 또는 重版을 거듭하면서 어느 때인가 後刻된 것이어서 三國遺事に 採擇된 때쯤에는 造營當初의 尺度와는 다른 내용의 尺數가 表記되었던 것인지의 問題를 검토하여야 한다.

皇龍寺塔은 「請工匠於百濟」키로 하여 百濟人 阿非知가 伊干龍春과 幹巖과 더불어 小匠 二百人을 거느리고 木石을 經營한 것이므로 造營當初의 意匠計劃이 百濟의 尺度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 지 신라의 尺度에 따라 樹立되었는지도 문제가 된다. 高麗 顯宗十三年辛酉(一〇二二)에 第四重成 文宗甲辰年(一〇六四)에 第五重成 肅宗丙子(一〇九六)年六重成 되어 오면서 尺度의 變遷이 어떠한지의 考察도 역시 문제가 된다.

百濟·新羅·高麗의 尺度가 皇龍寺塔에 끼친 영향에 따라 適用되어 온 尺數를 생각해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앞의 두가지 要點을 包括하는 문제를 一時에 해석한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될 수 없을 것이다. 文獻의 缺乏으로 큰 난관에 부딪치고 當代 造營活動에 使用되었을 尺度에 관한 정확한 關係 遺物이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고 그나마 하나 하나를 逐條하지 못하여 그 平均值——즉 尺度의 基本值를 把握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커다란 障壁으로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先學들의 意見도 이러한 전차로 하여서 各樣各色이고 最近에는 從來 學說과는 전혀 다른 尺度를 使用한 것으로 定義하려는 試圖도 있어서 이 문제는 斯界의 關心의 對象이 되고 있다.

從來 여러 學者의 諸說을 간주려 보면 使用 尺度를 東魏尺으로 보는 사람과 周尺으로 看做하려는 사람으로 兩分되는 듯하다.

前者를 主張하는 說은 高裕燮·藤島亥治郎兩氏가 代表되고 後者は 概說書이어서 크게 문제될만한 것은 못되지만 최근에 發表한 「韓國美術史」의 金元龍教授를 代表로 삼을만 하겠다.

이 小稿에서는 앞에 지적한 바와 같은 문제 全般을 다룰 수 없는 형편이므로 그 개요만을 살펴보고 金元龍教授가 學論한 周尺에 대하여 조금